



[낙농생산] 캐나다, 오미크론 확산에 농산물 생산 위기

- 근로자 확진자수 급증에 낙농업계는 물론 농업계 인력 확보 난항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농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수가 속출하면서 공공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낙농업계를 비롯한 농업계도 확산을 받는 근로자수가 늘어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캐나다농업연맹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인력난과 생산 중단 등으로 농산물 생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낙농업계의 경우 젖소 사양관리부터 착유까지 목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가 7개월 이상 소요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자체 안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농산물 및 식품 공급망의 안정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출처 : mapleridgenews.com, 1월 9일자 >

[소비동향] 이란,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 감소세

-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여파로 지난 2년간 평균 30% 감소



이란의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유 소비량이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여파와 식품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지난 2년간 평균 우유 및 유제품 소비가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우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함에 따라 유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초등학교에서 무상 우유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유제품 가격이 60%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정부관계자는 보조금과 무상우유 급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유제품 공장을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60-80kg으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iranintl.com, 1월 7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